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성경 사무엘하 15:1-12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오늘 하루, 사람의 시선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어떻게 사람을 의식하는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은혜의 찬양 318장)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맘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위 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2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찬송가 288장)

- 1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 2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 3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 읽기 사무엘하 15:1-12

- 1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오십 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 2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 3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 4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 5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러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 6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 7 사 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 8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 9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 10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 11 그 때 청함을 받은 이백 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 12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벳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본문 배경

사무엘하 15장은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반역하고, 예루살렘성을 차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누이가 이복형 암논에 의해 겁탈당했음에도 아버지 다윗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자 2년간 증오심을 품다 결국 암논을 살해하고 피신하였습니다. 이후에 요압의 중재로 아버지와 화해했지만, 결국에는 다윗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압살롬은 전차와 말, 군사들을 이끌고 성문 쪽에 서서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출신을 묻고, 자신이 왕보다 더욱 정당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이라고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사자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의 참모인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불러옵니다. 아히도벨은 당시 다윗의 신뢰를 받고 있던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이는 마치 압살롬의 반역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반역하는 무리가 점점 많아지고, 백성도 압살롬의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의 반역 성공의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자신의 계획을 위해 사람들과 아히도벨까지 데려오며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도망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이렇듯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사람의 힘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관찰

1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나요?(2-6절)

답 사람들의 억울함을 들어 주며 자신이 재판관이 되면 공정하게 해결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설 압살롬은 일찍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사정을 들어 주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고, 왕에게는 그들의 송사를 공정하게 판단해 줄 사람이 없다고 말하며 백성의 불만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재판관이 된다면 공의롭게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며 사람들의 기대를 끌어올렸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입을 맞추며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좋은 지도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한 섬김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이 장면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마음의 중심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드러냅니다.

2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얻고자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10절)

답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며 반역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해설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후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사자들을 보냈고, 사자들은 백성에게 나팔 소리가 울리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도록 지시합니다. 이는 그동안 철저히 준비된 반역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왕이 되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을 통해 그 계획을 이루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압살롬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심과 야망이 중심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선택이었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시작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높이려는 삶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적용

1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행동했던 적이 있나요?

2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적이 있는지 돌아보고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나누어 보세요.

8-1 사람이 흑암과

시편 107편 10~11절

♩ = 100

작곡 이종윤

사 람 이 흑 암 과 사 망 의 그 늘 에 앓 으 며 곤 고 와 쇠 사 슬 에 매 입 은 — 하 나

5 님 의 말 씀 을 거 역 하 — 며 지 존 자 의 뜻 을 — 멸 시 함 이 라

9 — 시 편 백 칠 편 — 십 에 서 십 일 절 — 말 씀 아 — 멘



가정예배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 또한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노력하며 살아갔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그로 인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은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